

유치환의 동인지 시기 시적 의미 연구

- 참여 동인지와 새로 찾은 시집 미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

강 호 정*

차 례

- | | |
|--------------------------------------|--|
| 1. 서론 | 2) 내면으로의 침잠-『生理』 그리고 시집 미수록 작품 |
| 2. '동인지 시기'의 시적 의미와 특징 | 3) '운동'으로서의 동인지- 『竹筍』, 『浪漫派』 그리고 『등불』의 시 |
| 1) 비상의 욕망과 현실인식-『참새』, 『掃除夫 第一詩集』의 경우 | |
| 3. 나오며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동인지 혹은 동인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 찾은 시집 미수록 시편을 통해서 유치환의 시를 조명하고, 각 동인지 시기별로 청마에게 동인지 활동은 어떤 의미였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청마의 이력을 살펴보면 청마는 어떤 형식으로든 오랫동안 동인지와 관련을 맺고 있다. 『소제부 제일시집』이나 『생리』처럼 주도적으로 관여했거나, 『죽순』이나 『낭만파』, 『등불』처럼 주도적이지는 않았더라도 다수의 시편을 발표하여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한 동인지도 있다.

* 한성대학교 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강의전담교수

청마는 초기 동인지를 통해 습작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시적 실험과 문학적 비상을 꿈꾸었으며, 동인지를 통해 자신의 시세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해방기에는 동인지를 통해 경남과 경북, 지역문단 내의 그리고 중앙문단과의 연결고리로서 지역문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해방기 유치환의 동인 활동은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운동’은 지역문학의 활성화를 위한 운동으로서의 의미와 소위 ‘중앙’과의 연계를 통한 조직화의 의미도 갖는다. 그것은 유치환의 해방기 동인활동이 그만큼 정치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는 청마의 동인지 시기 전 시기에 걸쳐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문단사에서 청마만큼 동인지를 잘 활용한 시인도 흔치않다. 동인지를 통해 청마는 문단적 입지와 지역 문학의 연대를 확장해 나갔다. 청마는 다양한 동인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량은 물론 문학장의 형성에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마는 중앙중심의 한국문단에 지형도를 넓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활동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유치환, 동인지, 『소제부 제일시집』, 『생리』, 『죽순』, 『낭만파』, 『등불』, 지역문학

1. 서론

이 논문은 동인지 혹은 동인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 찾은 시집 미수록 시편을 통해서 청마 유치환의 시를 조명하고, 각 동인지 시기별로 청마에게 동인지 활동은 어떤 의미였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청마의 이력을 살펴보면 청마는 어떤 형식으로든 오랫동안 동인지와 관련을 맺고 있다. 1930년대 중반, 소위 ‘동인지의 족출(簇出)’ 이후 많은 시

인들이 동인지에 원고를 수록하거나 일정 정도 관여를 한 경우는 많지만, 청마만큼 동인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시인도 드물 것이다. 『시학』 등의 동인지에 단순히 1-2편의 시를 게재한 것이 있는 반면, 『소제부 제일시집』(1930)이나 『생리』(1935)처럼 주도적으로 관여했거나, 해방기 『죽순』(1946)이나 『낭만파』(1946), 『등불』(1947)처럼 주도적이지는 않았더라도 다수의 시편을 발표하여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한 동인지도 있다. 이 외에도 『소제부』이전, 문학동인 <토성회>나 <참새> 등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런 동인지 활동이 당대에 있어서, 그리고 청마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동인지 수록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별로 동인지 수록된 청마의 시를 살펴다보면, 또 다른 질문으로서 청마의 초기시와 해방기 시의 시적 지향과 사상적 간극에 대한 미묘한 차이도 알게 된다. 청마의 초기시는 대체로 아나키즘과의 연관성 속에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고, 기존연구에서도 아나키스트로서의 청마의 면모를 확인한 경우도 있다. 반면 해방 이후, 청마는 우파의 대표격인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이하 청문협)의 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전쟁 중에는 중군작가단으로도 활동했다. 좌파적 성향이 강한 아나키즘과 당대 우파적 행동의 대표격인 조선청년문학가협회 및 중군작가단의 활동 사이의 사상적 간극에 대한 실마리도 엿볼 수 있다. 즉 동인지 활동을 중심으로 해방기의 청마의 시적 지향과 사상적 궤적을 돌아보겠다는 것이다.

청마 유치환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유치환론> 혹은 <청마론>이란 제목으로 전반적인 시세계를 다룬 논문들이 많이 축적되어 왔다. 대체로 ‘생명’, ‘허무의지’, ‘절대의지’ 등, “주로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내용에 대해 집중”¹⁾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주제, 시기, 장소, 동인지 등 외적 요인을 포함한 큰 틀에서 분류해보면, 첫째, 사

1) 김윤정, 『유치환의 문학에 나타난 ‘인간주의적 형이상학’고찰』, 『한민족어문학』 6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4, 479쪽.

상성을 포함하여, 시의식과 주제의식을 부각시킨 것,²⁾ 둘째, 만주시절의 시를 주로 다룬 것,³⁾ 셋째, 시에 나타난 지역성이나 경남지역의 지역성과 관련한 논문,⁴⁾ 넷째, 동인지 관련 논문⁵⁾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역시 첫 번째와 관련한 논문이 양적으로 절대 다수이고 주제도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유치환의 시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이 논문의 핵심 주제인 동인지와 관련한 논문으로는 『낭만파』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논문과, 『영문(등불)』을 대상으로 하면서 유치환을 언급한 논문과 해방기 경남 지역의 시운동을 살피면서 유치환을 언급하고 있는 논문⁶⁾이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치환의 동인지 관련 논문은 박철석의 연

-
- 2) 김윤정, 위의 논문; 윤은경, 『유치환 초기 시의 생명애의 지평과 윤리』, 『비평문학』 51집, 한국비평문학회, 2014; 이연승, 『유치환 시의 숭고미 연구- 초기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76집, 어문연구학회, 2013; 엄성원, 『유치환 시에 나타난 “까마귀”의 상징성』, 『한국시학연구』 10집, 한국시학회, 2004; 조동범, 『유치환의 정치적 실천 의지와 시적(詩的) 아나키-유치환 시의 사상적 정치적 근거와 아나키스트로서의 생애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12.
- 3) 박태일,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 연구-통영 출항과 만주국, 그리고 부왜시문』, 『어문학』 제98집, 한국어문학회, 2007; 서여명, 『청마 유치환 만주시편 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 4) 송희복, 『유치환의 경주시절과 시의 공간 감수성』, 『국제언어문학』 33집, 국제언어문학회, 2016; 송희복, 『경남의 지역문학과 아나키즘의 상관성 - 아나키즘 시인의 두 유형에 한하여』, 『국제언어문학』 22집, 국제언어문학회, 2013.
- 5) 박철석 『유치환의 초기시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 제20집, 한국문학회 1997; 박철석, 『청마가 이끈 두 개의 동인지-『소제부 제1시집』과 『생리』지의 모습』, 『지역문학연구』 제2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 이미경, 『유치환과 아나키즘- 특히 『소제부, 『생리』 지 소재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제26권 4호, 일지사, 2000.
- 6) 이상의 논의에 관한 논문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이성희, 『김춘수 초기시 연구-해방직후 동인지 『낭만파』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2집, 한국현대문학회, 2010; 한정호, 『꽃 없는 낭만의 계절-광복기 시동인지 『낭만파』에 대하여』, 『지역문학연구』, 제5권3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1999. 2. 문옥영, 『문예지 『영문(嶺文)』 연구』, 경남대 석사논문, 2010. 3. 박민규, 『해방기 경남 지역의 시운동과 시 이념-중앙 시단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구가 선구적인데, 기초적인 서지사항이 잘 드러나 있다. 이미경의 논문은 아나키즘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소제부』와 『생리』 두 권의 동인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역시 동인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모두 『소제부』와 『생리』 등 특정 동인지에 집중하고 있어서, 유치환의 동인지 시기의 활동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이 논문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청마는 생전에 모두 시집만 12권의 시집⁷⁾을 상재했다. 생애사적으로 볼 때, 일제강점기와 해방, 6.26전쟁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겪었는데, 시집 발간과 정치적 역사적 사건을 고려하여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첫 번째 시집 『청마시초』(1939) 이전의 초기시와 동인지 활동 시기이다. 둘째는 북만주에서 생활했던 해방이전까지의 재만시기이다. 셋째는 해방 이후 전쟁 이전의 시기이고, 넷째는 전쟁 이후의 시 4.19혁명의 시, 다섯째는 4.19 혁명 이후 1960년대 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글은 청마의 동인지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동인지 시기의 시 세계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인활동이 집중된 1930년대의 시와 해방 직후의 시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동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참새』, 『소제부 제일시집』의 초기 동인지 시기와 『생리(生理)』 중심의 본격적 활동의 시기, 해방기의 『竹筍』, 『浪漫派』 그리고 『등불』 참여시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동인지를 중심으로 유치환의 시를 검토하고자 하는 이 논문에서는 그 대상 시기가 1930년대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라는, 유치환 시의 초중기 시기를 관통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의 시대적 혼란과 시적 활동이 유치환의 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피려는 것이다.

7)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마시초』(1939), 『생명의 서』(1947), 『울릉도』(1948), 『청령일기』(1949), 『보병과 더불어』(1951), 『예루살렘의 닭』(1953), 『청마시집』(1954), 『재9시집』(1957), 『동방의 느티』(1958),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1960), 『미루나무와 남풍』(1964), 『과도야 어찌란 말이냐』(1965).

2. ‘동인지 시기’의 시적 의미와 특징

1) ‘비상의 욕망’⁸⁾과 현실인식- 『참새』, 『掃除夫 第一詩集』의 경우

청마의 초기의 시공부는 동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청마의 최초의 문학적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인활동은 『참새』(1927)라고 할 수 있다. 청마는 『참새』 4호(1927년)에 “短歌”라는 이름 아래 9편의 작품을 실고 있다.⁹⁾ 통영의 문학지망생 1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발행부수는 등사판으로 20여부라고 하니, 말 그대로 동인들끼리 돌려보는 회람지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1927년은 청마가 갓 스물일 된 해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직후이기도 하다. 『참새』에 수록된 단시 9편은 그야말로 습작단계의 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청마의 시 9편은 모두 4행으로 된 짧은 시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도 아니고, 연속적 이미지의 흐름에 따른 것도 아니어서, 전체를 한 편의 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연현상에 대한 순간적인 감상을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短歌’를 스스로도 습작이라고 여기고 있는 듯하다.

맑은 밤 우르르니 / 못별 사이로 / 내 녀시는 九天을 / 달음질쳐라//
 먼 바다에 떠있는 / 흰 돛단 배는 / 불 때마다 엇전지 / 줄음이 와라//
 彩雲 사이 보이는 / 靑天和 가치 / 내 마음은 맑고도 / 놓직하여라
 -短歌(1-3연)¹⁰⁾

8) ‘비상의 욕망’은 콤플렉스의 관점에서 유치환 시의 특성을 논구한 이지원이 유치환의 초기시의 한 특징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지원, 『유치환 시에 나타난 콤플렉스와 욕망의 상관관계 연구』, 『영주어문』 제34집, 영주어문학회, 2016, 152쪽.

9) 『참새』는 1926년 8월에 <통영참새모임회>가 중심이 되어 간행한 동인지로, 1-3호까지는 동인작품 60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박철석, 앞의 논문, 1997, 232쪽 참조.

10) 남송우 엮음, 박철석 감수, 『청마 유치환 전집 IV』, 국학자료원, 2008, 13쪽. 시의

1연은 ‘맑은 밤의 뭇별’이 대상인데, 2연은 ‘먼 바다의 흰 돛단배’로 그 대상이 바뀐다. 연속된 한편의 시로 볼 수 없는 이유인데, 그때그때 단편적인 이미지를 시화하고 있다. 또 7.5조의 전통적인 운율을 예외 없이 따르고 있다는 점도 이 시가 본격적인 자유시의 형식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시 말미에 <附設>에 “이 맺 篇의 토막 詩를 爲先 短歌라고 일너 두 나이다. 그러나 이리저리 보아서 아주 未成한 點이 만사오나 日後에 또 다시 考하야 發表할 때가 잇슬 줄 生角합니다”라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작품을 ‘시’라고 내세우기에는 스스로 미숙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겸사로 읽을 수는 없어 보인다. 이 <附設>을 통하여, 앞으로 계속 시를 쓸 것이라는 각오 정도를 읽을 수 있을 뿐이다.

『참새』 동인활동이 습작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후 보다 발전적인 동인활동은 『소제부』¹¹⁾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치환은 <소제부> 동인 활동의 결과물로 간행된 『소제부 제일시집』에 무려 26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한꺼번에 많은 시를 수록하고 있어서 『소제부 제일시집』을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동인지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제부』의 동인활동에 대한 결산 문집¹²⁾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다른 동인들에 비

인용은 이 『전집』의 시를 인용하고, 원전이 필요한 경우만 원전의 것을 옮긴다.
11) <소제부> 동인 활동의 결과물로 간행된 『掃除夫 第1詩集』(1930.8.) 후기에 “一九二九年 七月 詩誌<掃除夫>는 月刊으로 出生”한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소제부> 동인활동은 1929년부터 한 것으로 보인다. 박철석은 “『掃除夫 第1詩集』은 총 126쪽 등사로 민 46판형의 책자로, 유치환의 시 26편을 비롯, 동심(童心) 9편, 稚想兒 (청마의 동생 유치상) 9편, 張春植 4편 등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발행자 및 편집책임자는 유치환으로 되어 있으나 이 동인지의 중심인물은 청마”로 보인다고 적고 있다. 박철석, 『유치환의 미발표 및 작품집 미수록 시에 대하여(1)-『소제부 제1시집』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집, 동아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96, 84쪽, 참조.

12) 『掃除夫 第1詩集』 후기에도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由來一箇年동안의 꾸준한 底力은 이미 百二十餘篇의 詩를 回覽하였다. 그 중에서 口味에 들리라고 生覺하는 數篇을 골유어서 여기에 한 卷의 冊으로 담았스니 일홈하야 掃除夫第一詩集 이라한다.”(『지역문학발굴자료』『소제부 제1시집』, 『지역문학연구』 제2호, 경남 지역문학회, 1998.3. 50쪽.)

해 월등히 많은 작품을 수록하고 있어서 시에 대한 청마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치환의 초기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시는 두 가지 대별해 볼 수 있다.¹³⁾ 하나는 우리가 흔히 유치환에게서 떠올리는 관념적이고 의지적인 시편들인데, 특이한 것은 유치환 시의 끊임없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돌멩이와 새’의 이미지가 이미 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유나 사상의 가감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시작 방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어대서 滄浪의 물결 새에서 생겨난 것.
 저 蒼穹의 깊은 藍碧이 방울져 떨어진 것.
 밝은 七月달 한울에 눕히 뜬 맑은 적은 녀이여
 傲岸하게도
 動物性的의 땅의 執念을 떠나서
 사람이 다스리는 世界를 떠나서
 모든 愛念과 因襲의 煩瑣함을 떠나서
 그는 제만의 삼가하고도 放膽한 녀을 타고
 저 無邊大의 天空을 飛翔하여
 거기서 靜思의 닷을 고요히 노코
 恍惚한 그의 꿈을
 칠월달 세계 우에 너울히 내려퍼고 잇는
 - 소리개
 소리개는 소리개 그대로 또 조치 안는가
 - 『소리개』, 『掃除夫 第一詩集』¹⁴⁾

‘하늘에 높이 뜬 맑은 녀’이 곧 소리개일 것인데, ‘저 無邊大의 天空을

13) 이미경은 “소제부 시기의 유치환의 시는 아나키즘의 사상 중 평등을 주제로 한 현실적인 시와 인간의 자주성을 노래하는 개인적이고 관념적인 시로 대별”하고 있다. (이미경, 앞의 논문, 186쪽 참조)

14) 『청마 유치환 전집 IV』, 30쪽,

飛翔해야 / 거기서 靜思의 닷을 고요히 놓고, 꿈을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 소리개에게는 화자가 지향하는 모습과 심사가 고스란히 투사되어 있다. '높고 맑은 녀'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나, 약육강식을 대변하는 '동물적 땅의 집념'을 버리고 싶은 것이 화자가 지향하는 바가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사람이 다스리는 세계를 떠나'고 싶은 것이나, '모든 愛念과 因襲의 煩瑣함'을 떠나고 싶은 것 또한 화자의 심사이자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의 이미지는 청마의 시에서 여러 번 변주되는데, 대체로 이상적 상황에 대한 회구를 노래하고 있다. 청마 시에 나타난 '까마귀'의 상징성을 논구한 엄성환 역시 "새와 같이 날개를 가진 대상이 시의 모티프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존재론적 혹은 형이상학적 지향성을 효과적으로 표상하는 매개체"¹⁵⁾로 새(까마귀)를 들고 있다. 이런 새의 이미지와 더불어 청마의 시에는 돌맹이의 이미지도 자주 등장하는데, 새가 상승의 이미지라면 돌맹이는 불박혀 있는 존재로 등장한다.

불타는듯한 精力에 넘치는 七月달 한낮에
가만히 흐르는 이 靜寂이여.

마당가에 굴러있는 한 적다란 存在-
내려 쪼이는 단양아래 點點히 쪼꾸린 적은 돌맹이여.
끝내 말없는 내 녀의 말과 또 그의 하이함을
나는 너게서 보노니

해가 西쪽으로 기우러짐에 따라
그림자 알푸시 자라나서
아아 드디어 윈 누리를 둘러싸고
내 녀의 그림자만의 밤이 되리라.

15) 엄성원, 앞의 논문, 204쪽.

그러나 지금은 한낮, 그림자도 없이
 불타는 단양아래 쪼꾸려
 하이한 하이한 꿈에 싸였나니
 적은 돌맹이여, 오오 나의 녀이여.

- 「靜寂」, 『掃除夫 第一詩集』¹⁶⁾

이 시에서도 돌맹이는 ‘마당가에 굴러다니는 불품없는 것으로, 태양아래 온몸을 드러낸 채 쪼그리고 있는 사물에 불과하다. 그런 돌맹이를 ‘나의 녀이여’라고 부르며 자아와 동일시하고 있다. ‘가만히 흐르는 정적’의 이미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타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저 혼자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돌맹이의 이미지는 ‘새’의 이미지와 더불어 청마 시의 주요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소리개가 생물로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라면, 돌맹이는 무생물로서 화자의 관념의 투사에 따라 대상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창공을 나는 자유로운 새와 하얀 꿈에 싸여 조용히 처박혀 있는 돌의 이중적 이미지는 청마시가 지니고 있는 시세계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문청시절에 볼 수 있는 낭만적이면서도 회의주의적인 속성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掃除夫 第一詩集』에 수록된 시 중의 다른 한 부류로서,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시편들이 있는데 「눈 어둔 제비의계」, 「流星이다」, 「이자식이 돌아」, 「저녁풍경」, 「앞집 세 남매」, 「딸넛집의 저녁」 등이 그에 속하는 시들이라 하겠다. 이들은 말 그대로 문학적 장치라든가 감정의 투사 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런 류의 시는 이후의 청마시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이기도 하다.

늙어빠진 魔女갓흔 할머니는 멍청히 房을 내다보고 안젓다
 어린애는 맨땅에 안저서 발버둥질하며 앙앙 울고 있다

16) 『청마 유치환 전집 I』, 64쪽.

어미가 물독을 이고 들어온다
 발은 벗고 들나온 입가슴에는 껍지만 남은 검은 젖통이 두 개
 축 처져 달렸다
 들에 갇든 아버지는 소와 홀충이를 외양간에 드러놓는다

이 사람들은 다 병어리요 귀머거리다

- 『딸넷집의 저녁』, 『掃除夫 第一詩集』¹⁷⁾

위의 시는 관념적인 유치환의 시 중에서 대상의 묘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경우에 속하는 시이다. 대상에게 ‘나’의 심사를 투사했던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용시에는 할머니와 부모, 어린 아이로 이루어진 가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할머니는 마귀같은 늙어 빠진 사람이고, 어머니는 껍지만 남은 검은 젖통의 소유자이며, 아버지는 소처럼 일만하는 사람이다. 이들이 모두 병어리고, 귀머거리라는 것은 당대의 삶과 사람에 대한 제유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현실적 시는 유치환 초기시에서 아나키즘적 성향을 읽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시들이다. 청마의 시를 아나키즘의 영향권 아래에 두고 읽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나,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청마의 시를 점점 더 아나키즘의 강력한 자장 아래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동범¹⁸⁾은 유치환이 정치적 사상적으로 확고한 아나키스트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유치환이 아나키즘의 요람인 안의중학교에서 교장생활을 했다는 것과, 아나키즘 정당인 독립노동당 당원이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립노동당의 당원명부가 온전히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유치환이 독립노동당의 당원이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¹⁹⁾고 적고 있어서, 꼼꼼한 자료 조사와

17) 『청마 유치환 전집 IV』, 45쪽.

18) 조동범, 앞의 논문, 361-388쪽.

19) 위의 논문, 367쪽.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다소 미약해 보인다. 오히려 “세 형제(유치진, 유치환, 유치상-인용자)가 모두 아나키즘의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첫째와 둘째는 아나키즘 동반자였고, 오로지 막내만이 유일하게 아나키스트였다”²⁰⁾는 것이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유치환의 시세계를 아나키즘의 자장 안에 들만한 것이 그다지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고, 유치환을 ‘정치적, 사상적으로 확고한 아나키스트’로 보는 것은 그의 시세계를 협소하게 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치환이 확고한 아나키스트였다면, 앞서 말했던 해방 이후의 청문협 활동이나 전쟁기 중군작가단 활동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 단순히 아나키즘과 마르크시즘의 대립적인 관계²¹⁾로 인해서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단순 논리에 기댈 수밖에 없어진다. 그러나 현실인식을 반영하고자 한 태도만큼은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치환의 초기 동인지 활동은 비상의 욕망과 현실인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외적으로는 『참새』와 『소제부』에 각각 9편, 26편이라는 다수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시에 드러난 내적 요인으로는 ‘소리개’ 등 새의 이미지를 통해서 비상을 꿈꾸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딸넛집의 저녁』에서 보듯이 현실인식을 드러낸 다수의 시편과 ‘돌’의 이미지를 통해 현실의 삶이 녹록치 않고 그에 따라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도 드러내고 있다. 청마의 초기 시공부는 동인지에서 시작해서 동인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의 청마의 시는 동인활동을 통한 사상적, 시적으로 비상을 모색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 송희복, 앞의 논문, 70쪽

21) “아나키즘은 사회주의 사상과 일면 부합되는 점이 있지만 아나키즘의 자유와 저항정신은 아나키스트로 하여금 조직과 권위에 대한 극도의 혐오를 낳게 되고 이는 마르크시즘과 아나키즘 대립의 근본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미경, 앞의 논문, 177쪽 참조.

2) 내면으로의 침잠-『生理』 그리고 시집 미수록 작품

『생리』 1집은 1935년에 발간되었으며²²⁾, 편집 및 발행인은 유치환, 참가한 동인은 김기섭, 장응두, 유치상, 최두춘, 박영포 등이며 대체로 작품의 수준도 일정수준에 이른 것²³⁾으로 보인다. 『생리』는 유치환의 대표적 동인지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본인의 수록시는 3편에 불과하다. 그것은 『생리』가 2호로 막을 내린 이유도 있겠지만, 작품을 앞세우기 보다는 편집자로서의 역할을 떠맡았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 무렵 유치환의 시는 주로 흔들리는 내면의식을 보여주는데, 이 절에서는 『생리』의 시와 1930년대에 발표한 <시집 미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유치환 시의 흔들리는 내면의식을 살펴보겠다.

『생리』가 간행된 1935년은 공식적으로 등단한 이후 5년의 세월이 흐른 뒤이며, 『시학』, 『시건설』 등의 매체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이기도 하다. 또 1930년대 중후반은 소위 ‘동인지의 簇出’ 시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동인지가 쏟아져 나오던 시기이기도 하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시원』(1935)의 발간을 시작으로 『시인부락』(1936), 『시건설』(1936), 『자오선』(1937), 『시인춘추』(1937), 『맥』(1938), 『웅계』(1939), 『시학』(1939), 『시림』(1939) 등이 연이어 발간되었다. 지역적으로도 서울은 물론, 중강진(『시건설』, 청진(『맥』)²⁴⁾, 예산(『시인춘추』) 등 다양한 지역에서 동인지가 속출했다. 이미 동인지의 경험이 있는 청마로서는 이런 시대기류에 맞추면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해

22) 『청마 유치환 전집 IV』 약력(318쪽)에는 1937년에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책 47쪽에는 『생리』 수록 시를 소개하면서 1935년 7월 1일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박철석 역시 1935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생리』를 소장하고 있다는 박철석의 말을 따른다. 박철석, 『청마가 이끈 두 개의 동인지-『소제부 제1시집』과 『생리』지의 모습』, 54쪽.

23) 이미경, 앞의 논문, 186-187쪽 참조.

24) 『맥』은 발행소는 서울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영역은 청진이다. 이와 같이 발행소와 실제 활동지역이 다른 경우는 당시의 동인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시인춘추』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나가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 중후반은 시대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만주사변(1931)에서 중일전쟁(1937)으로 이어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어사용 강제령(1937)과 조선어과목 폐지령(1938) 등 일련의 식민지 억압정책으로 인해 우리말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공식적인 매체의 지면 부족과 검열의 강화 등으로 인해 당대의 시인들은 전국 단위의 신문이나 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고, 검열이 덜 심한 동인지를 통하여 문학적 능력과 열정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1930년대 중후반은 외형적으로 활발한 시적 현상과 검열이 강화되는 등의 억압적인 시대적 상황이 이중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였다. 유치환이 동인지를 주도하고 애상적 정조가 강조된 시를 창작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동인지 『생리』에는 그러한 내면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생리』에 수록된 청마 시 중의 한 편이다.

落落한 외나무 가지에 깃을 짓고
호올로 높히 사는 새 잇나니
烈烈한 치위
내물은 열고 동무 새는 다 가고
오오 적은 새의 애상은 푸르러 玉 갖것만
스스로 외로움에 한 슬픈 習慣 잇서
주우리면 아침 서리 깃흔 땅에
季節박사의 아쉬운 미끼를 줍고
저 遙遠한 遙遠한 만목의 숙참에
초라히 쪼그리고 사는 새여

- 「까치」, 『生理』 2집²⁵⁾

인용한 시 「까치」는 앞에서 살펴 본 「소리개」의 다른 판본이라고 할

25) 『청마 유치환 전집 IV』, 48쪽.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데, 『소리개』보다 애상의 정조가 강화되어 있다. ‘높이 사는 새’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소리개』와 동일하지만, ‘적은 새의 애상’, ‘외로움’, ‘슬픈 습관’ 등의 어휘가 애상의 정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스스로 “초라히 쪼그리고 사는 새”에 투사하고 있다. 스스로 ‘호올로 높히 사는 새’라고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추위와 외로움에 떠는 새이다. ‘줍는 것이 있다면’ 철지난 미끼나 줍고, 덩굴이 뻗어나간 나무(만목)에 간신히 잠자리(숙침)나 마련한 초라한 새일 뿐이다. 이러한 감상적 어조는 『生理』1집에 수록된 시에서 “내가 畫家라면 / 저 푸른 蒼空을 어떻게 그리리 // 한 点의 구름도 업고 / 산머리도 市街도 眼界에 업는 / 볼수록-너를 매료하는 / 저 갯업시 새파란 蒼空을!”(창공)이라고 노래한 대목에서도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

의지적이고 단언적인 남성적 어조, 시라는 형식이 요구하는 리듬감이거나 압축 등을 고려치 않는 산문투의 문체, 시적 기교의 절제, 한문투의 빈번한 사용²⁶⁾ 등이 청마 시의 대체적인 모습이라면, 193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그 의지의 모습보다는 애상적 정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1930년대 후반에 그에게 가해진 현실생활의 압박과 그로 인한 내면적 흔들림 등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모습을 살펴보기에는 1930년대 여타의 동인지 및 잡지에 수록된 시 중에서 아직 보고되지 않은 시집 미수록 작품을 예로 들어도 좋을 것이다.

내 길가에 앉았는 때물은 觀相師 앞에 가서
 가난한 나의 호주머니를 털어놓고
 나의 타고난 운명의별을 짐지하여 보려나니
 어찌 내만이 宇宙의 因緣에서 벗어나 있으리오

진실로 無邊大한 偶然 안에 宿命 받은 나의 별이
 한떨기 엉겨켜처럼 곳은 惡運에 태였드래도

26) 이미경, 앞의 논문, 170쪽.

오오 그래도 나의 별!
너는 어느 하늘가에 반짝 熱에 젖어있을지니
내 오늘 세상에 묻히어 오직 두더쥐 모양 忍苦하노니

하야 내 어느 겨를에 거품처럼 사라져
못별 가운데 조고마한 空虛하나 생기기로
宇宙의 廣大한 意志 가운데 무슨 슬픔이 있을 리 있으리오.
그 휘잇한 자리는 반짝이는 다른 새별로 다시 차리니

- 『運命』²⁷⁾

이 시는 관상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물어보고, 그 운명이 ‘긋은 운명’이라고 해도 참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관상 보는 사람에게 나의 운명을 점지해보려는 것이나, ‘긋은 운명’에 태어났거나, 내가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등의 이미지는 청마 시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던, 의지적이고 남성적인 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제목까지 ‘운명’이라고 했는데,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두더쥐 모양 인고’하다가 ‘거품처럼 사라’지겠다는 내용으로 흔들리는 내면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자신의 빈자리는 ‘다른 새별로 다시’ 찰 것이라며 깊은 절망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 마디로 ‘나’는 없어져도 되는, 사라져도 상관없는 ‘못별’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이다. 훗날 “희망도 의욕도 저 버리고 한갓 반편으로 그 굴욕에 젖어 살아갔다”²⁸⁾고 회상했던 시기의 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운명』은 중강진에서 발행된 동인지 『시건설』에 수록된 작품인데, 이후 청마의 시집에는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다.²⁹⁾ 『시건설』에 수록된, 두 편의 『山』과 『바다』, 『竹』, 『期約』, 『오오랜 太陽』 등의 시는 모두 이후

27) 『시건설』 4집, 1938.1.

28) 『청마 유치환 전집 V』, 284쪽.

29) 이후 간행된 시집은 물론, 2008년 간행된 『청마 유치환 전집』의 한 부분인 “시집 미수록 시편”에도 실리지 않은 작품이다.

『청마시초』나 『생명의 서』에 수록되었다. 이 시만 수록되지 않은 이유는 청마 스스로 운명에 굴복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싫어서 의도적으로 빼기로 판단된다. 좀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운명」 이외에 새로 찾은 ‘시집 미수록 작품’은 「夕暮에 드리는 哀詩」(『신동아』 1935.7), 「바렌시아!」(『朝光』, 1936.7), 「꽃바람」(『朝光』, 1939.3), 등 모두 4편이다. 1939년에 발표한 「꽃바람」은 단순히 봄바람을 노래한 2행 3연의 짧은 시라서 예외적이라 할 수 있지만, 「夕暮에 드리는 哀詩」나 「바렌시아!」는 애상적 정조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³⁰⁾

1930년대 동인지의 특성으로 '1920년대에 비해 동인지가 급격히 늘어났고, 그에 따라 참여문인이 다양해졌으며,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동인활동이 있었다'는 점³¹⁾ 등을 들 수 있다면 『생리』 역시 1930년대 동인지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생리』는 불과 2호로 막을 내렸지만, 문학사적으로 생명파라는 명칭을 얻게 된 동인지라고 할 수 있다. 『생리』에 와서 청마의 시세계는 흔들리는 내면의식을 보여주는 하지만,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간다고 할 수 있다.

3) '운동'으로서의 동인지 - 『竹筍』, 『浪漫派』 그리고 『등불』의 시

유치환은 1945년 6월 만주에서 귀향하여 곧바로 해방을 맞이한다. 해방은 몸의 해방이기도 했지만, 출판의 해방이기도 했다. 해방기 출판의

30) 「夕暮에 드리는 哀詩」는 6연 47행의 꽤 긴 시이다. 논거를 위해 상대적으로 짧은 「바렌시아!」를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바렌시아! / 너를 생각함은 이다지 꿈은 설음이뇨// 바렌시아! / 나의 슬픈별, 마음의 喪章이여// 바렌시아! / 나는 너를 잃었어도 너는 나를 직히리// 바렌시아! / 네 손은 내손보다 크던구나 // 바렌시아! / 네가 꿈아하든 진달래도 버얼서 지고// 바렌시아! / 내 오늘밤 눈비에 젖노니// 바렌시아! / 오오 내, 병어리 되었노라.>

31) 강호정, 「1930년대 시전문 동인지와 로컬리티」, 『한민족문화연구』 제51집, 2015. 109-136 참조.

활성화는 동인지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해방기 동안에만 약 35종의 동인지가 전국 각지에서 출간되었으며, 그 중에서 시 위주의 동인지만해도 10권이 넘었다³²⁾. 해방 이후에 간행된 동인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죽순』³³⁾, 『낭만파』³⁴⁾ 그리고 『등불』³⁵⁾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기의 지역 문단은 대구 마산 진주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대구에서는 『죽순』이, 마산에서는 『낭만파』가, 진주지역에서는 『등불』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청마가 이들 동인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죽순』에는 해방기 동안 12권의 동인지가 간행되는 동안 『六年後』 외 11편을 비롯하여 거의 매호 시를 싣고 있으며, 『낭만파』에는 3집과 4집에 걸쳐서 7편의 시를 발표하고 있다. 또 가장 오래 동안 간행된 『등불』에도 1954년 간행된 12집까지, 『釜山圖』 외 35편의 시를 싣고 있으며 전쟁 이전, 해방기만 따져도 30편의 시를 싣고 있다. 각각의 동인지에서 손꼽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동인지는 모두, 해방 이후 비슷한 시기에, 지역에서 출간된 의미 있는 동인지라고 할 수 있다. 청마는 주로 통영에서 활동했으나 이들 동인지에 모두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해방기 유치환의 동인 활동은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32) 노고수, 『한국동인지팔십년사연구』, 소문출판, 1991, 232-233쪽 참조.

33) 『죽순』 창간호는 ‘죽순시인구락부’를 발행인으로 하여 1946년 5월 1일자로 대구에서 발간되었다. 이후 1949년 7월 11집으로 종간할 때까지 임시증간호를 포함 총 12집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34) 『낭만파』는 1946년 조향을 중심으로 마산에서 발간된 시동인지이다. 김춘수, 김수돈 등이 주요 동인으로 참여했다. 1집은 아직 확인할 수 없고, 2집은 『근대서지』에, 3,4집은 『마산의 문학동인지 1』에 수록되어 있다.

35) 『등불』은 1947년 설창수의 주도로 경남 진주에서 발간된 문학 매체이다. 한국전쟁기에 한 번 거르고 1960년 11월까지 총 18집까지 나왔다. 시작은 진주시인협회 기관지 성격을 띤 시동인지였으나 4집 이후부터 갈래를 확대해서 종합문예지 성격을 띠었다. 이후 5-6집은 『영남문학』으로, 7집부터는 『영문(嶺文)』으로 개제하여 발간되었다.(문옥영, 앞의 논문, 3쪽.)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로 통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등불』을 사용한다.

있다. 이때의 ‘운동’은 지역문학의 활성화를 위한 운동으로서의 의미와 소위 ‘중앙’과의 연계를 통한 조직화의 의미도 갖는다. 그것은 유치환의 해방기 동인활동이 그만큼 정치적이란 의미이기도 한데, 이는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청마의 동인지 시기 전체에 걸쳐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 청마의 활동은 여타 문인에 비해 독보적이었다. 청마 스스로 “해방 직후 수년 동안은 거의 해마다 시집을 내리만큼 나는 시를 많이 썼다”³⁶⁾고 적을 만큼 시집을 많이 발간하였으며, 시집 발간 이외에도 청문협 일로 통영과 서울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했다. 또 “경남 지방 곳곳의 문학 단체와도 긴밀히 교류하고 있었”으며, “지역 문단 내에서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³⁷⁾ 이는 다분히 정치적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지역 문단의 대표적 동인지였던 『죽순』, 『낭만파』, 『등불』에의 참여는 이런 문단 정치적 행보의 문학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의 이면에는 해방 이전의 행동에 대한 반성적 태도³⁸⁾와 해방 이후의 정국에 대한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들 동인지에 수록된 청마의 시는 각 동인지 별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회한이 어린 시와 서정성이 강조된 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해방 이전 소위 만주시절에 쓰인 시이거나 적

36) 유치환, 『行方 잃은 感激』, 『청마 유치환전집 5』, 국학자료원, 2008, 304쪽. 유치환은 1947년 6월 『생명의 서』, 1948년 9월 『울릉도』, 1949년 5월 『청령일기』를 연속적으로 출간한다. 이 말은 해방기 동인지에 수록한 시들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곧바로 시집으로 엮었다는 말이다. 1948년 3월 『죽순』 8집에 실린 『선창에서』와 『새』같은 시는 수정 없이 같은 해 9월에 발간한 『울릉도』에 실렸으며, 1949년 4월에 간행된 『영문』 7집에 실린 20편의 시 역시 같은 해 5월에 발간된 『청령일기』에 곧바로 수록된다. 일종의 조금증까지도 느낄 수 있는데, 해방기 유치환의 시적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

37) 박민규, 앞의 논문, 120쪽.

38) 그는 스스로 “(일제강점기에) 희망도 의욕도 저 버리고 한갓 반편으로 그 굴욕에 젖어 살아”갔으며, “그 비굴한 후자의 길에서나마 나는 나대로의 인생을 값없이 헛되게는 버리지 않으려고 나대로의 길을 찾아서 걸어가기에 고독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유치환, 『遮斷의 시간에서』, 『청마 유치환전집 V』, 국학자료원, 2008, 283-284쪽.)

어도 정신세계는 만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들이다. 대체로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특히 『죽순』에 수록된 시에는 만주의 지명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만주시절의 애환과 회한 혹은 해방 이후의 회환을 드러내고 있는 시가 많다. 그것은 그 대상이 ‘항일’이든 ‘생명자체’이든 ‘신명으로 저항하지 못한’³⁹⁾ 것에 대한 회오로 보인다. 일종의 ‘시적 반성문’처럼 읽힐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회한이 많이 드러나며, 고향이나 국토에 대한 애정이 새삼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다음에 인용하는 시 역시 회한의 정서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내 여기 어리석게 섰으되
悠久 半萬年の 光芒의 끝머리에 있노니

風水와 事大의 辱된 病도
오히려 애달게 울고 온 나의 울음

목 마르면 물 마시고
별 뜨면 잠자고
어떤 汚辱의 비와 바람에도
오직 族屬에의 슬픔만으로 견디어 왔나니

아아 나의 피는 나의 祖國

鳥鵲때 우짖는 어느 孤獨한 골짜기로 쫓길찌라도
나의 義로움에
끝내 어리석어 짐승으로 죽게 하라

- 「어리석어」, 『죽순』 3집⁴⁰⁾

39) 김윤식, 『유치환론』, 청마문화회 편, 『다시 읽는 유치환』, 시문학사, 2008, 77-79쪽 참조.

40) 『청마 유치환 전집 I』, 198쪽에서 인용.

화자는 지금 해방 이후 고향에 돌아와 “悠久 半萬年の 光茫의 끝머리”에 서 있다. 그 자리는 ‘애달게 울고’ 난 이후의, ‘오욕의 비와 바람’을 견뎌 후의 어리석음이 서 있는 자리이다. 이렇듯 3연까지는 해방 이전 만주 시절의 삶의 힘겨움과 회한이 뒤섞여 있다. 4연에 이르러서 화자는 ‘나의 조국’을 호명한다. 화자는 ‘조국’이 있음으로 해서 ‘사대의 욕된 병’도 또 ‘어떤 오욕의 비와 바람’도 견뎌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어리석을까. 무엇이 어리석었기에 스스로 ‘짐승으로 죽게하라’고 했을까. 아마도 만주에서의 삶이 그 대상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시에서는 구체적인 회한의 양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강한 의지와 조국애 등이 다소 막연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이 무렵 보여준 회한의 시는 대부분 조국이나 조국의 제유를 호명하는 경우가 많다. “조국의 장래를 논하고/ 이 땅에 와서 박힌 겨레의 거취를 논하”거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던 애달픈 조국”(『오상보성외』)을 호명한다. 또 ‘나의 피는 나의 조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해방된 조국에서 드러낼 수 있는 정서이자, 정치적 입장에서 새로운 방향 설정의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인용하는 시 『절명지지』는 자신에 대한 비애감이란 측면에서 앞서 인용한 『어리석어』의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분위기의 시이다.

고향도 사랑도 회의(懷疑)도 버리고
 여기에 굳이 입명(立命)하려는 길에
 광야(曠野)는 음우(陰雨)에 대해(大海)처럼 황막(荒漠)히 거칠어
 타고가는 망아지를 소주(小舟)인 양 추녀 끝에 매어 두고
 낫설은 호인(胡人)의 객잔(客棧)에 들어 홀로 앉으면
 명인(嗚咽)인 양 회한(悔恨)이여 닳을 쪼아 시험하라
 내 여기에 소리 없이 죽기로
 나의 인생은 다시도 기억하지 안하리니

- 『절명지지(絶命之地)』, 『낭만파』 3집⁴¹⁾

해방 이후 『낭만파』에 발표한 시이나, 내용으로 보아 만주 시절에 쓴 것이거나 적어도 만주시절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시로 보인다. 이 시에 드러나는 회한은 표면적으로는 ‘고향도 사랑도 회의도 버리고’ ‘낮설은 호인(胡人)의 객잔에 홀로’ 앉아 있는 자신의 처지에서 비롯한다. 더군다나 그 길이 천명을 쫓는다(立命)는 의미로서 화자의 의지가 아닌 타자의 뜻에 의한 것이라면 회한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아무도 기억 해주지 않을 인생에 대한 회한이기도 한데, 이는 앞서 살펴본 시 『운명』에서 ‘내가 사라진다 해도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 동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방기에 발표한 시의 특성으로서 또 다른 부류는 서정성이 강화된 시라고 할 수 있다. 서정성이 강화된 시는 주로 『등불』을 개제한 『영문』에 수록되는데⁴²⁾, 『죽순』에 수록한 시가 1940년대 후반 만주 시절에 대한 회한으로 얼룩진 시가 많다면, 『낭만파』에 수록된 시는 만주시절의 회한과 서정성의 시가 뒤섞여 있다. 『영문』 수록 시들은 새로운 형식적 실험의 변모를 꾀하는 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시의 특징은 대체로 5행으로 된 나름의 형식적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5행으로 된 짧은 소품이다 보니 『영문』에 발표할 때는 한꺼번에 여러 편씩 발표했다. 6집에 6편, 『영문』 7집에는 『오행시집』이라는 이름 아래 20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5행 단련單聯의 시를 의도적으로 실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서정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 서정성이 강화된 시는 회한의 끝자리에서 비교적 잠잠해진 허무한 심사가 드러나 있으며 자연에 의탁하는 경향이 짙다고 할 수 있다.

한창 풀벌이 넝넝거리는 살구꽃이 피어 있는
여기 東大新洞 한 모퉁이 채마밭 옆댕길을
시방 나비가 앞서 가고 내가 따라 가고

41) 『마산의 문학동인지 1』, 마산문화관, 2007, 15쪽.

42) 『영문』에 수록된 시는 대부분 시집 『청령일기』(1949)에 수록된다.

머리를 돌리면 멀리 거리 위에 치쳐오른
아아 森森한 봄바다 푸른 水平線

- 「봄바다」, (『嶺文』 7집(1949))⁴³⁾

아까 주막에서 피한 소낙비 앞서간
재 위의 떠갈나무 아래 서서
개인 빗방울에 우수수 다시 어깨 맞다
돌아보면 岐城섬은
아득한 구름 속에 묻히었어라

- 「雨後晴」, (『嶺文』 7집(1949))⁴⁴⁾

5행으로 된 깔끔한 소품이라고 할 수 있다. 「봄바다」에서는 한적한 동네 모퉁이의 산책길에서 바라보는 봄바다의 풍경이, 「雨後晴」에서는 비 개인 후 아득한 구름 속에 묻혀 있는 기성섬이 풍경으로 등장한다. 기성섬을 고향의 제유로 읽는다면 잠시 향수에 잠긴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들 시에서는 어떤 사상의 투입도 읽을 수 없으며, 오히려 달관한 사람이 읽는 자연의 모습과 거기에 투영된 화자의 심사만 남아 있을 뿐이다. 청마시의 특징 중의 하나인 한자어의 사용도 이 시기에는 대폭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한자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한자가 지니고 있는 관념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은 사라지고, 오히려 서정성이 강화된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들 동인지 중에서 가장 먼저 작품을 발표한 『죽순』인데, 이후 『낭만파』, 『등불』에 발표를 한다. 대부분의 동인지가 그렇듯이 발행 주체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이 동인지 유지의 핵심 관건이 되는데, 『죽순』의 이윤수가 그랬고, 『낭만파』의 조향이, 『등불』의 설창수가 그 역할이었다. 이들 모두 우파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유치환은 이들과의 연결에 있어서 자신의 명성과 지연과 인맥을 모두 활용한다. 대구의 이윤수

43) 『청마 유치환 전집 I 권』, 263쪽.

44) 『청마 유치환 전집 I 권』, 271쪽.

에게는 직접 찾아갔고, 『낭만파』와 『등불』은 『낭만파』의 동인이자, 설창수의 친구인 김춘수를 매개로 어렵지 않게 연결된다. 청마의 이런 활동은 지역문학을 아우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이는 다분히 청문협 활동에 부응하는 것⁴⁵⁾이기도 하다. ‘청문협 문인들은 중앙에서 발간되는 종합지 『신천지』와 『백민』에 1946년부터 1949년에 이르기까지 글을 발표할 지면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청문협 문인들은 확고한 매체적 기반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다.’⁴⁶⁾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당시 문단에서 잡지 매체가 갖는 역할을 고려한다면, 청마의 활동은 지역문학을 아우르는 노력에 값하는 것이었다.

해방기 동인지는 특정 장르 중심의 문학작품 위주로 실었던 이전의 동인지에 비해 시를 중심으로 하되, 詩論과 평론 등을 아울렀다.⁴⁷⁾ 다양한 장르의 글을 수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죽순』, 『낭만파』, 『등불』 등은 청문협의 좋은 제휴 대상이었다. 중앙 문단에서 이미 명성을 갖고 있던 시인들과 중앙 문단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던 지역문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청문협의 부회장이자로서 유치환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낸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지역별로 조금씩 떨어진 지역 문단의 동인지에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작품을 수록한 이유이기도 하다.

45) 이 무렵 유치환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만하다. “그는 1946년 4월의 청문협 결성 당시 김달진과 함께 부회장이었고, 두 달 뒤 6월 20일에는 청문협 주최의 예술의 밤 행사에서 사회를 맡았으며, 47년 4월에는 청문협 시부와 팔월시회가 공동 주관한 제1회 조선시인상을 수상하였고, 그해 11월 5일의 제2차 청문협 대회에서는 위원장에 올랐을 정도로 청문협 시단의 중심인물이었다” 박민규, 앞의 논문, 120쪽.

46) 김준현, 『‘순수 문학’과 잡지 매체-‘청년문학가협회’ 문인들의 매체 전략』, 『한국근대문학연구』 2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60-61쪽.

47) 『등불』의 경우는 4호부터 문예중심의 종합지로 나아갔다.

3. 결론

우리 문단사에서 청마만큼 동인지를 잘 활용한 시인도 흔치않다. 동인지를 통해 청마는 문단적 입지와 지역 문학의 연대를 확장해 나갔다. “잡지가 문인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중요한 매체였음은 물론 문학 장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⁴⁸⁾했다는 것은 어느 특정 시기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청마에게 동인지는 단순히 발표 지면을 얻는 것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는데, 문청 시절에 참여했던 <토성회>와 『참새』를 거쳐 『생리』와 해방기의 동인지인 『죽순』, 『낭만파』, 『등불』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동인활동은 거의 생애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치환의 초기 동인지 활동은 비상의 욕망과 현실인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딸뱃집의 저녁』 등 나중에 시집에 수록되지 않은 시편들에서 인상 깊은 현실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1930년대 중후반은 외형적으로 활발한 시적 현상과 검열이 강화되는 등의 억압적인 시대적 상황이 이중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였다. 유치환이 동인지 『생리』를 주도하고 애상적 정조가 강조된 시나 내면의 흔들림이 드러난 시를 창작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이는 『생리』에 수록한 시 『까치』나 『창공』은 물론, 이 무렵에 발표했지만 시집에 수록하지 않은 시 『운명』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이후에는 경남 경북 지역에서 발간된 『죽순』, 『낭만파』, 『등불』 등의 동인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들 동인지에 다수의 작품을 발표한 것은 물론 중견시인으로서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앙문단과의 연결고리로서 지역문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지역문학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운동으로서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1930년대 중반 이후 해방기까지 청마의 궤적을 동인지 중심으

48) 김한식, 『『백민』과 민족문화- 해방 후 우익 문단의 형성』, 『상허학보』 20, 상허학회, 2007. 233쪽.

로 살펴보았다. 동인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1940년대 초반 만주시절의 시적 세계가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청마는 각 시기별로 다양한 동인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시적 욕망을 분출했음은 물론 결과적으로 중앙중심의 한국문단에 지형도를 넓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활동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마산의 문학동인지 1』, 마산문화관, 2007.
남승우 엮음, 박철석 감수, 『청마 유치환 전집 I ~ VI권』, 국학자료원, 2008.
죽순문학회, 『죽순』 영인본(1~10집), 북랜드, 2004.

2. 논문 및 단행본

- 강호정, 「1930년대 시전문 동인지와 로컬리티」, 『한민족문화연구』 51집, 한민족문화학회, 2015, 109-138쪽.
김윤식, 「유치환론」, 청마문화회 편, 『다시 읽는 유치환』, 시문학사, 2008, 73-100쪽.
김윤정, 「유치환의 문학에 나타난 ‘인간주의적 형이상학’ 고찰」, 『한민족어문학』 6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4, 477-509쪽.
김준현, 「‘순수 문학’과 잡지 매체-‘청년문학가협회’ 문인들의 매체 전략」, 『한국근대문학연구』 2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10, 59-84쪽.
김한식, 「『백민』과 민족문학- 해방 후 우익 문단의 형성」, 『상허학보』 20, 상허학회, 2007.6, 231-270쪽.
노고수, 『한국동인지팔십년사연구』, 소문출판, 1991.
문옥영, 「문예지 『영문(嶺文)』 연구」, 경남대 석사논문, 2010.
박민규, 「해방기 경남 지역의 시운동과 시 이념-중앙 시단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12, 117-142쪽.
박철석, 「유치환의 미발표 및 작품집 미수록 시에 대하여(1)- 『소제부 제1시집』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집, 동아대학교국어국문학

과, 1996, 81-97쪽.

박철석, 「유치환의 초기시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 제20집, 한국문학
회, 1997, 231-246쪽.

_____, 「청마가 이끈 두 개의 동인지-『소제부 제1시집』과 『생리』지의
모습」, 『지역문학연구』 제2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 49-58쪽.

송희복, 「경남의 지역문학과 아나키즘의 상관성 - 아나키즘 시인의 두
유형에 한하여」, 『국제언어문학』 22집, 국제언어문학회, 2013.4,
53-82쪽.

엄성원, 「유치환 시에 나타난 “까마귀”의 상징성」, 『한국시학연구』 10집,
한국시학회, 2004.5, 203-223쪽.

이미경, 「유치환과 아나키즘- 특히 『소제부, 『생리』 지 소재의 시를 중
심으로」, 『한국학보』 제26권 4호, 2000.12, 일지사, 168-191쪽.

이지원, 「유치환 시에 나타난 콤플렉스와 욕망의 상관관계 연구」, 『영주
어문』 제34집, 영주어문학회, 2016.10, 151-182쪽.

조동범, 「유치환의 정치적 실천 의지와 시적(詩的) 아나키;-유치환 시의
사상적 정치적 근거와 아나키스트로서의 생애 연구」, 『현대문학
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12, 361-388쪽.

<Abstract>

A Study on the period literary coterie
magazine of Yu Chi-hwan and Poetic
Meaning

- Focusing on participated literary coterie magazine and
newly found excluded poem -

Kang, Ho-Jung*

This paper aims to focus on the poetry of Yu Chi-hwan through his literary coterie magazine activity and newly found 'excluded poem from collection'. According to Yu's personal history, he was connected to literary coterie magazine for long time in various formats. He led 『Sojebu Jeilsijip(掃除夫 第一詩集)』 or 『Saengri(生理)』 in the 20s and 30s. Since the liberation, he wasn't initiative but published numerous poem such as 『竹筍(Jooksun)』¹⁾이나 『Nangmanpa 浪漫派』, 『Dengbul』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literary coterie magazine.

Through his early 'literary coterie magazine', he dreamed of a variety of poetic experiments and literary flying, and he set up a framework for his own poetic world. In the liberation period, he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local literary circle as a link between Gyeongnam and Gyeongbuk, the local and the central, through 'literary coterie magazine'. The activity of the liberation period can be

* Hansung Univ.

said to be strong as a ‘movement’. The ‘movement’ also has the meaning of movement as the movement for the activation of local literature and the meaning of organization through linking with so-called ‘central’. It also means that the activities of his liberation period act is so political.

There are few poets who use the ‘literary coterie magazine’ as much in our literature. Through the ‘literary coterie magazine’, he expanded the circle of literature and local literature. He ha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literary fields as well as individual competence through various activities. As a result, the significance of the activity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it tried to broaden the topographic map in the center-centered the literary world.

Key Words: Yu Chi-hwan, literary coterie magazine, 『Sojebu Jeilsijip (掃除夫 第一詩集)』, 『Saengri(生理)』, 『Jooksun(竹筍)』, 『Nangmanpa(浪漫派)』, 『Dengbul』, Local literature

■ 논문접수 : 2018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18년 8월 4일

■ 게재확정 : 2018년 8월 17일